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미술 감상교육 연구

-중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이 속 경

2007년 8월

제주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미술 감상교육 연구

-중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 민 석

이 숙 경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이숙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년 8월

<국문초록>

제주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미술 감상교육 연구

이 속 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강 민 석

제주도는 한라산을 비롯하여, 주변의 검은 현무암, 거센 바람과 함께 지내온 두터운 초가지붕, 풀을 뜯는 조랑말 등은 다른 고장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지리적, 자연적 특성은 제주인들의 삶과 더불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왔으며 그 바탕위에서 자생된 문화적 특성은 제주의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크나큰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문화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들을 이야기 해 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가 지나온 발자취를 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 재창조의 발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

21세기 다문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국가 경쟁력은 무엇보다 문화교육에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기보다는 외래 미술 사조를 기준으로 가치를 논해왔다. 그럼으로써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학생들은 전통미술 문화의 가치를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고 민족적 특성을 지닌 지역 문화에 대한 미적 감각을 키울 기회를 갖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의 흐름을 읽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학습으로 전통적인 미의식을 갖추도록 해야 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외래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대응책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미술교과의 감상 영역에서 문화재의 역사적인 의미, 조형적인 탐색, 정신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감상 지도 방안을 모색하여 제주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미술 감상 교육을 연구 하였다. 또한 감상수업의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학습을 위해 미술비평을 도입시켜 학생들이 관찰력, 분석력,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래, 그에 따른 지역문화재의 유형과 내용을 향토 자료를 통하여 조사하여 문화재만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와 조형적인 특징, 정신적인 가치를 찾았다,

둘째, 미술 감상의 의미와 가치, 감상능력의 발달단계, 그에 따른 감상을 하기 위한 선행조건 및 문화재 감상의 의미와 가치를 정리하였다.

셋째,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미술 감상 수업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감상방법을 미술 비평 방식에 연관시켜 모색해 보았다.

끝으로 중학교 수준에 맞는 문화재의 미적인 면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재를 선정하여 그에 맞는 교수학습 과정을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대해 보고자 한 내용은 첫째, 지역 문화재를 미술 감상에 적용함으로써 지역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둘째,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 문화재를 소개화 함으로써 생생한 미적 체험을 하고, 조형적 특징 및 자연미와 조화된 조형미를 미술 비평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작품 감상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문화재의 역사적 배경과 유래를 통하여 조상의 숨결을 느끼고 지역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애호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고장에 산재해 있는 문화 유적들은 이 땅을 지켜온 조상들의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미적감상자원이다. 우리 생활 속에 함께 숨 쉬고 조성된 문화재를 좋은 감상 자료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문화재의 이해와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고 감상수업에 흥미를 느끼게 하여, 제주도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7년 5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 | |
|--|----|
| 국문초록 | i |
| I. 서론 | 1 |
| II. 제주 지역 문화의 형성 | 3 |
| 1. 제주 문화의 특성 | 3 |
| 2. 제주 지역 문화재 | 13 |
| III. 미술 감상 지도의 실제 | 20 |
| 1. 미술 감상 교육 | 20 |
| 2. 감상 학습 자료로서의 문화재 | 30 |
| 3. 제주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교수 - 학습 과정안의 구안 | 43 |
| IV. 결론 | 54 |
| 참고문헌 | 56 |
| Summary | 58 |

표 목 차

| | |
|--|----|
| <표 1> 국가 지정 문화재 총괄표 | 14 |
| <표 2> 국가 지정 문화재 국보 및 보물 | 15 |
| <표 3>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 | 15 |
| <표 4> 국가 지정 문화재 중요민속자료 | 16 |
| <표 5> 제주도 지정 문화재 총괄표 | 16 |
| <표 6> 제주도 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 17 |
| <표 7> 제주도 지정 문화재 민속자료 | 18 |
| <표 8> 제주도 지정 문화재 자료 | 18 |
| <표 9> 제주도 지정 문화재 기념물 | 19 |
| <표 10> 제 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 비교표 | 23 |
| <표 11> 펠드만의 비평단계 | 27 |
| <표 12> 룯친스의 감상 능력발달단계 | 29 |
| <표 13> 감상 학습 자료로서의 문화재 | 31 |
| <표 14> 수업모형 | 43 |

그 립 목 차

| | |
|-------------------------|----|
| <그림 1> 내왓당 무신도 | 32 |
| <그림 2> 영주십경도 | 33 |
| <그림 3> 탐라순력도 | 34 |
| <그림 4> 돌하르방 | 34 |
| <그림 5> 복신미륵 | 35 |
| <그림 6> 동자석 | 36 |
| <그림 7> 관덕정 | 37 |
| <그림 8> 방사탑 | 38 |
| <그림 9> 존자암지 세존사리탑 | 39 |

<그림 10> 원당사지 5층석탑 40
<그림 11> 제주 초가 41
<그림 12> 물 허벅 42



I. 서론

미술은 인간의 손에 의해 창조된 조형미로써 시대와 기후, 풍토 등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며 인간의 생활과 더불어 공존해 왔다. 다양한 표현 양식들은 서로 연관성을 갖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각의 특색 있는 문화로 그 지역성을 잘 설명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역사와 더불어 발전해온 다양한 미술사적 자생력과 고유한 문화가 빚어낸 문화적 역량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매력을 자아내며 문화의 세계화, 국제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오늘날 첨단 정보통신 기술 및 교통의 발달하면서 세계 곳곳의 문화와 풍속에 대한 지식과 자료와 문화가 개방되고 간접적인 문화체험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문화에 대한 인식도 보편적 가치와 함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의 철학적인 배경과 다문화시대가 확산되고, 다문화 가치를 인정하고 삶의 방식이 변화되면서 미술교육 또한 새로운 인식, 다원적인 문화 이해 측면의 접근 방식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미술교육도 세계화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교육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외래문화에 휩쓸려 우리 문화 및 미술의 역사적 가치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던 감상 영역에서의 지역문화유산을 ‘오래된 재미없는 것’이라고 쉽게 간과한 점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유산은 특정 시대, 특정 지역 사람들의 서민적인 미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생활방식과 관습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다문화시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체성을 잃지 않는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감상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주지역 문화유산을 미술 감상 수업의 자료로 이용함으로써 제주 지역 학생들이 제주의 색다른 문

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미술 감상 수업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감상으로서의 미술비평을 도입하여 다양한 방향으로서의 미술적 관점으로 감상하고 평가하면서, 어떤 특정 문화의 우월성이나 열등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하는 바탕위에 우리 문화의 귀중함을 알고 존중하는 문화의식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 지역의 향토 자료를 통하여 문화의 형성 배경을 조사 하였고,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생성된 문화재를 선택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재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감상 지도안을 구안 하였다.



II. 제주 지역 문화의 형성

우선 제주 지역의 문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미술 교육의 감상영역에서 어떻게 적용 할 것인가를 연구 하였다.

미술교과 특성상 학습 내용이 문화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게 되므로 학습의 효과는 학생들이 속한 문화적 환경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제주지역 학생들이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 사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학습할 경우 학습 내용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흥미를 갖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이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기회도 그만큼 많아져 학습의 효과가 높아 질 수 있다.

1. 제주 문화의 특성

인간의 역사는 곧 조형의 역사이다. 조형이란 인간의 모든 의식을 동원하여 어떤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 즉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그 근간을 둔다. 민족, 시대, 환경 등이 예술의 모체가 되고 정신문화의 체온을 형성해 간다. 따라서 조형물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문화는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과 인간이 융화 되어 왔다. 이것은 서양의 “자연정복관”¹⁾과는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온다. “제주의 미(美) 또한 자연미다. 제주의 매력은 순수하고 단순하며 깊은 원시예의 향수이다.”²⁾ 역사적으로 볼 때 미술이 발전하는 곳은 대개 농업 혹은 상업의 중심지이거나 오랫동안 안정된 절대왕권이 존속했던 곳 혹은 귀족문화가 발달했던 곳 등이었다. 사실 세계적인 거대하고 찬란한 조형문화가 발달한 곳은 대부분 엄격한 신분제와 노예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이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1)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는 서양의 문화형성 방향.

2) 변시지(1988) 「예술과 풍토」, 열화당 p.92.

이러한 조형물들을 감탄스럽게 바라보게 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반면 제주의 경우 비록 거대하거나 찬란한 조형물은 없다 하더라도 마치 제주를 께 안고 있는 듯 한 한라산을 배경으로 마을을 지키는 돌하르방, 돌하르방을 믿고 의지 하는 제주인 들의 소박한 소망이 조형물들로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그 소박하고 규모가 작은 조형물들을 통해 그 이면에 내재한 제주인 들의 평등정신이나 소박미, 서민적 취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 자연·지리적 배경

제주도는“기원전 1만 년경 하나의 섬을 형성하면서 관계적으로 동중국해상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적 위치는 제주도가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왕래하는 중계지, 남방해양문화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이해되고 있고.”³⁾바다를 사이에 두고 육지와 고립되었을 뿐 아니라 대륙과 동떨어져 있음으로 사회 역사적으로 문화적 전파가 용이하지 못하였다. 사면이 바다라는 자연환경은 해적 및 외세 침입이 잦아 제주의 선인들은 외세에 침략으로부터 섬을 보호하기 위해 도민들이 모두 동원되어 성을 쌓아야만 했다. 그 대표적인 흔적이 환해장성(環海長成)이다. “환해장성은 고려원종11년(1270) 진도에 웅거한 삼별초가 제주도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해안선 삼백 리에 걸쳐 쌓은 것인데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현재는 성의 일부만 남아 있다.”⁴⁾

제주는 지리적으로 “위도 33도에 위치해 있는 중위도의 온대에 해당하여 대체로 온화한 편이지만, 겨울의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유럽의 동위도 지방보다는 비교적 추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여름에 남쪽에서 불어오는 태풍은 제주에 많은 비를 가져다주어 일면 농업 생산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 되지만, 농업환경이 좋지 못한 제주의 경우는 오히려 그 피해가 많았다.

제주의 자연 환경은 제주인 들에게 무조건 관용을 베풀 것은 아니다. 자연은 이로움과 해로움을 동시에 주어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주인 들의 삶의 지혜를 요구 하였다.

3) 강을생(2001), 「제주도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4) 제주도 교육과학연구원(2004), 「제주문화의 향기」 p101.

5) 「탐라순력」, 창간호, 탐라문화보존회, p.34.

“제주인 들에게 늘 피해를 주었던 세 가지 재난은 모두 제주의 지리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태풍에 의한 바람의 피해, 중앙에 높은 한라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으니 비가 오면 물 흐름이 빨라 빈번한 비의 피해, 돌이 많고 토질이 박하여 조그만 가뭄에도 그 피해가 많아진다는 것이다.”⁶⁾ 이런 제주인 들은 불리한 생존 환경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소박하고 협조적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순박한 미를 창출하고 제주만의 고유한 민속 문화를 형성하였다.

제주의 자연을 결정하는 큰 요인인 한라산은 “제주도의 중앙에 솟아있는 해발 1,950미터의 거대한 화산도인 한라산을 제주의 지형을 지배하고 제주의 지질과 기후를 결정한다.”⁷⁾ 경사가 심한 지형, 강이 없는 섬, 너른 초원, 논이 드문 척박한 산성 토질 등 지질학적 특성과, 바람의 방향과 비를 많이 내리게 하는 기후적 특성도 모두 한라산에서 비롯된다. 또한 한라산은 제주사람에게 신앙적 대상이 되기도 했고, 제주사람의 인성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자연환경에서 제주도의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360여 개의 오름(기생화산)도 중요한 요소이다. 오름을 등지고 형성된 촌락에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으며 곳곳의 오름에 마련된 제터는 신앙의식의 터로서 신성시되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해안을 관망하기 용이한 오름은 조선시대 25개나 되는 봉수를 설치해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고 때로는 최영의 목호토벌이나 4.3항쟁지 거점이 되기도 하여 오름은 늘 제주인 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⁸⁾

제주는 섬이지만 제주사회의 기층은 해양문화가 아닌 농경문화이다. “제주 삼신이 먼 바다 건너에서 오곡의 씨를 갖고 찾아온 세 처녀와 배필을 맺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에서 제주 문화의 기층이 농경문화임을 짐작할 수 있다.”⁹⁾ 그렇지만 “자연 환경적으로 제주도는 화산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주도 토양의 70%는 화산재 토양”¹⁰⁾이며, 그 두께가 매우 얇아 제주

6) 「탐라순력」, 탐라문화 보존회, 창간호, p.34.

7) 박찬식(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민예총. p76.

8) 「탐라순력」, 탐라문화 보존회, 창간호, p35.

9) 현길언(2001), 제주문화론, p.47.

10) 제주도, 국토개발연구원(1994),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p106.

인 들의 농업 생산성은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돌이 많아 조그만 가뭄에도 농작물의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비가 오면 흙이 쉽게 쓸려 내리는 경우가 허

다하였다. 바람역시 건조한 제주의 흙을 날렸기 때문에 씨앗을 뿌린다 하여도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밭을 밟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때의 메마르고 암반 위에 얇게 흙이 깔려 있어 소와 말을 뛰게 하여 뿌린 씨앗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할 때 함께 쓰였던 “돌테”¹¹⁾는 척박한 농토, 더욱이 농사짓기에 불편한 자갈밭에서 경작해야 했던 제주인 들이 생활에서 나타나는 농기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의 돌 문화가 강조된 이유는 바로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밭담(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쌓은 울타리)은 밭의 돌을 이용하여 막돌로 “허튼 쌓기”¹²⁾를 하여 밭의 구역을 나누고 마소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방풍의 기능으로 제작된 것이다. “원담(바닷가에 돌을 원형으로 쌓아 고기를 잡는 원시어로 형태)은 ‘개’, ‘원’이라고도 일컬어지며 마을 공동체 의 어획 공동구역(漁獲共同區域)을 표시할 때 쓰였다.”¹³⁾ 또한 마소가 무덤에 들어 봉분(封墳) 훼손을 막기 위해 그리고 화전(火田)에 의한 불의 번짐을 막기 위해 쌓았던 산담 또한 제주의 특유한 경관으로 남아 있다.

제주인 들은 돌에서 태어나 돌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돌에 대한 의식은 제주인 들에게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생활 용구 제재로 뿐만 아니라 구석기시대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석묘’ 즉 ‘고인돌’은 고대인의 무덤으로 제주 특유의 현무암괴석을 지상에 받치고 있는 신앙 대상으로서의 돌문화도 빼 놓을 수 가 없다. 또한 “제주도 지석묘의 주변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 석기로 이루어진 돌그릇, 돌칼, 돌화살, 돌도끼 등 선사시대 문화의 모습도 돌 문화였음을 알 수 있다.”¹⁴⁾

제주인 들이 자연적 조건을 어떻게 이용하여 삶의 방식을 찾았는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생활 자체가 문화이며 역사인 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모두들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고

11) 현무암으로 만든 원통형의 돌.

12) 돌담을 쌓을 때 크고 작은 돌을 같이 끼워 넣으며 쌓는 방식.

13) 고광민(1995), 제3기 박물관 대학시민강좌, 제주대학교박물관, p.239.

14) 이청규(1984), 「광령리 출토 석기와 김해식 토기」, p.135.

싶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조건과 환경과의 문제가 쉬지 않고 대립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여 그것들을 극복하며 살아왔다. 그 결과가 문화로 남게 되었다.

2) 제주의 조형

(1) 제주의 색

제주의 자연은 한마디로 색채가 강하고 짙다. 바다, 산, 나무, 돌 등을 보면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채는 드물다. 옛 전통적인 제주의 초가집은 제주의 자연과 잘 어우러져 드러내지 않는 나뭇대로의 품위와 멋이 있다. 이렇듯 제주의 색은 자연과 어우러져 은근함 속에 품위를 잃지 않고 있다. 곳곳에 나타나는 색의 특성을 살펴보면 제주만의 특유의 색감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토양, 암석, 바다, 식물, 의식주에서 나타나는 색채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토양에 나타나는 색채

제주도 지질구조는 “화산활동에 의한 용암의 분출 상태에 의하여 구성, 분류되고 있다. 암석에 나타나는 색채는 제주의 암석 중 95% 이상이 현무암이며, 이는 다공질(多孔質)이고 검은색의 특징을 나타낸다.”¹⁵⁾ 그로인하여 토양에 나타나는 색채는 화산회토로서 농암갈색 토양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흑색토양이 비율이 높다. 따라서 제주의 경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토양의 색채에 있어서 저명도 저채도의 색채경관이 나타난다.

해안가에서의 퇴적암들은 모래와 화산회 등이 굳어진 암석들이므로 주황계열로 다양하게 고루 분포되어 있다. 육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영모래는 거의 없으며 하천이나 바다에서 파식한 현무암의 모래로 퇴적된 경우는 어두운 무채색을 띠며, 패사(貝死)로 구성된 지역은 밝은 무채색을 띠고 있다. 암석이 굳어진 온도에 따라서 고명도의 무채색에서부터 저명도의 붉은 계열로 나타난다. 바다색은 원거리, 근거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모래가 패사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15) 권진희(1998), “제주의 고유색 현황과 도시지역 색채 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p.69.

② 바다색에 나타나는 색채

바다색은 원거리, 근거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모래가 패사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패사(貝死)로 인하여 바다색이 녹색기미의 파랑 계열로써 밝은 색채군이 나타나기도 하고 현무암의 어두운 색채가 바다색에 영향을 주어 바다색이 어둡게 나타나기도 한다."¹⁶⁾

③ 식물에 나타는 색채

제주는 평지에서 한라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식물군이 다양하다. "활엽수림대는 서귀포시와 동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침엽수림대는 북제주군 서부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¹⁷⁾ 식생의 분포에 따라 환경 색채가 달라진다는 점이 제주의 색감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요소가 된다.

④ 의복에 나타나는 색채

제주를 대표하는 의복으로 갈옷을 들 수 있다. 갈옷은 농경 목축 어로생활 등에 알맞게 개발해낸 작업복이다. 무명으로 만든 옷에 풋감의 즙을 짜서 그 물을 들인 후 햇볕에 고루 바라면 밝은 갈색이 되는데 감 즙의 풀기 때문에 질길 뿐만 아니라 땀이 배이지 않으며 더러움을 타지 않아 빨래에 번거로움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갈옷은 아직도 제주인 들에게 노동복으로 입혀지고 있으며 개량하여 현대화시켜 생활의복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갈옷의 색채는 제주도민의 독특한 색채로써 상징성이 짙다. "화려하고 원색적인 색은 저승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제주인 들의 소박미와 서민적 취향을 엿 볼 수 있다."¹⁸⁾

⑤ 초가에 나타나는 색채

제주의 초가는 민가의 외벽이 대부분 흙과 현무암과 역새를 섞어 만들어져 있다. "외벽의 색채가 인 공색을 사용하지 않고 제주에서만 의 흙과 돌과 역새를 사용한 자연재료 그 자체가 색이므로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융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⁹⁾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16) 권진희(1998), "제주의 고유색 현황과 도시지역 색채 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p.70.

17) 권진희(1998), 상계서, p.71.

18) 제주문화재과총서(1996)「,제주의 민속 IV」,의생활 색생활 주생활편, 제주도, p94.

인공적인 조형물에서 자극을 받아온 학생들에게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색감을 알고 느끼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과 조화 이해하기”²⁰⁾에 제주의 조형은 더 없이 좋은 교육의 요소가 된다..

(2) 제주의 회화

회화의 전통은 멀리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삼국시대 고려 시대에는 유명 화가나 그림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전해지는 작품이 적어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야 그림에 대한 면모를 제대로 살필 수 있다.

제주 오현(五賢)²¹⁾의 한사람으로 추앙되는 충암(沖庵)김정은 특히 영모화(동물그림)를 잘 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의 그림으로 확실시되는 산초백두도(山椒白頭圖, 二鳥和鳴圖로도 전함)는 산초나무에 앉은 두 마리의 할미새(백두옹)를 정감 있게 표현한 수작으로 뽑힌다.”²²⁾

“숙종2년(1702)당시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李衡祥,1653-1733)이 자신의 제주도 순시(巡視)장면을 화공 김남길(金南吉)을 시켜 그리게 한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가 있다.”²³⁾ 여기에는 당대 사대부 층의 자연관이 담겨 있다. 이 그림은 당시의 행사 등의 기록화가 궁중을 중심으로 그려지던 예에 비추어 멀리 제주도에서 그려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고전적인 화법을 잇고 있으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실제의 모습을 관찰한 화가의 경험이 그대로 그림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진경산수의 형성이 전통적인 화법에 뿌리를 두고 형성되었듯이 ‘탐라순력도’에서도 진경산수화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면을 찾아 볼 수 있다.”²⁴⁾

“19세기 후반은 조선왕조의 국력이 쇠퇴하는 가운데 후기에 유명한 회화작품도 아울러 쇠퇴하였다.”²⁵⁾ 그러나 “추사 김정희(1789-1866)를 정점으로 하는 추사파로 지칭되는 조희룡(1789-1866), 전기(1825-1854), 홍세섭(1832-1854)등

19) 권진희(1998), “제주의 고유색 현황과 도시지역 색채 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p.85.

20) 교육 인적 자원부(2006),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미술1」교학사, p.7.

21)1520년(중종 15년)에 유배된 충암 김정, 1534년에 목사로 부임한 규합 송인수, 1601년(산저 34년)에 안무사로 왔던 청음 김상헌(金尙憲), 1614년(광해군 6년)에 유배된 동계 정온과 1689년(숙종 15년)에 유배된 우암 송시열 등이다.

22) 제주의 역사와 문화, p.181.

23) 국립제주박물관, 상계서 181.

24) 국립제주박물관(2001), 상계서, p.182.

25) 국립제주박물관(2001), 상계서, p.193.

에 의해 남종 문인화가 큰 세력을 떨치었다. 추사의 문인화는 도가의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유가의 학문적 수양과 불선의 득도의 경지를 보이며 문인화의 대표적인 경지²⁶⁾에 이른다.

“제주도의 모습을 그린 ‘영주십경도’는 자연이 가지는 모든 형태의 표현이다. 제주의 대표적인 명승 10곳을 소재로 하여 그린 것이며 이 작품에는 당시 다른 민화들에서도 볼 수 있는 추상화, 패턴화, 평면화 된 구성 등을 엿볼 수 있으며, 영곡의 표현에서 보듯 의인화의 경향도 드러나고 있다.”²⁷⁾

제주만의 특징적이고 독자적인 내용을 지닌 ‘내왓당 무신도’는 최근에야 그 중요성이 인식이 되기는 하였지만 제주의 회화사와 무속을 연구하고자 할 때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재이다.

(3) 제주의 공예

제주의 대표적인 공예품으로 옹기를 들 수 있다. “보통 찻물을 입히고 환을 쳐 문양을 만드는 것이 보통이나 제주의 옹기는 찻물을 입히지 않고 나뭇재가 떨어져 입혀진 자연유(自然釉)만으로 처리되어 있어 더욱 통기성이 좋고 붉은 색이 아름다워 제주도 옹기만의 독특한 미감을 자아낸다.”²⁸⁾ 문양을 내는 방법에 있어서도 장식문양을 가장 단순한 도구나 손을 사용하여 “항아리 기면에 흙 띠를 두르고 대칼로 여러 번씩 눌러 모양을 내거나 허벅 기면에 ‘보로롱’이라 칭하는 제주만의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여 단순미가 돋보인다”²⁹⁾.

옹기의 종류는 그 수가 많아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그 중에도 대표적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항아리와 독들이다. “제주에서는 웃통개, 알통개, 춘재미, 망데기 등 형태와 크기에 따라 그 이름들도 재미있는데 우리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김치, 장, 젓갈류들이 모두 이 항아리 속에 저장되었으며 곡식류나 씨앗들의 저장고로 필수적이었다”³⁰⁾.

또한 술을 빚는 술항아리로도 쓰였고, 물 항아리로도 쓰였는데 “물이 귀한 제주에서는 물을 지어 나르던 물허벅, 때죽나무에 매달고 땀기머리같이 땀아

26) 최병식(1993), 「동양미술사학」, 예서원, p.85.

27) 국립제주박물관(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p. 80.

28) 국립제주박물관(2001), 상계서, p.191.

29) 국립제주박물관(2001), 상계서 p.189.

30) 국립제주박물관(2001), 상계서, p.190.

향아리 속으로 늘어뜨려 우천 시 빗물이 흘러내리도록 하여 식수로 사용되기도 하였다.”³¹⁾

제주에는 다양한 수종이 있어 특히 생활용구를 중심으로 한 목공예가 발달되었다. “목재의 수종에는 뽕나무, 느티나무, 구실잣나무, 붉가시나무, 멸구슬나무, 솔비나무, 조록 나무, 비자나무, 주목 등이 대표적이다.”³²⁾

뽕나무는 한라산에 자생하는 장미과의 낙엽활엽교목으로 제주인에게 가장 쓰인 나무이다. “제주의 목공예품의 재료는 단단하면서도 발색이 좋아 채색한 목공예품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제주도는 화산회토로 이루어져 양질의 점토가 생산되지 않는 곳이라 목공예가 대치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함박(나무밥그릇)으로 접시나 나무접시로 대응되었다.”³³⁾ 제주 목공예품의 특성중 하나는 모든 용도에 목기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생활용구로서 나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졌음을 의미한다.

(4) 제주의 건축문화

“한라산을 중심으로 수많은 오름들 아래 웅기종기 낮은 초가지붕이 나지막하고 둥글게 오름의 선과 어울려 편안함이 있고 역새 지붕 누런 황토색 역시 인공적인 색이 아니라 가을로 접어든 자연의 빛깔이다”³⁴⁾ 이처럼 제주의 건축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을 포용한다. 마을 어귀에는 커다랗고 조형미가 넘치는 오래된 팽나무, 느티나무 아래서 이웃들이 정을 나누는 모습이 있었다.

제주의 초가는 비바람이 세찬 제주도의 기후조건과 지리적 여건에 적응하여 고유하고 독특한 조형성을 갖는다. 새와 역새로 지붕을 덮고 비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새라는 풀로 새끼를 꼬아 격자 꼴로 지붕을 덮고 있다.

또한 바람의 영향을 이겨 내기 위하여 “주거건축에 있어서 마을과 집터를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정하고 있고, 지형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가옥의 방향이 좌향을 하고 있다. 이유는 중앙에 한라산이 위치하고 있어서 섬의 북서쪽에서는 북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³⁵⁾ 이처럼 제주의 건축

31) 국립제주박물관(2001), 상계서, p.189.

32) 국립제주박물관(2001), 상계서, p.193.

33) 국립제주박물관(2001), 상계서, p.195.

34) 윤원태(1998), 「한국의 전통초가」, p.207.

35) 윤원태(1998), 상계서, p.197.

문화는 합리적이고 지혜롭다.

가옥구조에서도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안채와 가옥구조에서 안채와 바깥채의 독립된 취사단위를 두는 것, 영역의 분리에서 대문이 아닌 올래를 두어 율동적인 외부공간구성을 하는 것 등 제주도만의 독특한 공간을 구성해 왔다. ‘올래’라는 공간은 “혼올래집이라 하여 오늘날 올래를 만들지 않고 바로 대문을 만들어 다는 오늘을 사는 제주인들은 선조들이 가졌던 건축에 대한 심미적 감각(음악이 흐르는 공간)을 잃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³⁶⁾

“ 마을의 공동시설로는 신앙의례 시설물인 당(堂), 휴식시설물인 폭낭알, 생활부대시설물인 샘터와 방에 등이 갖추어진다.”³⁷⁾ 신앙의례 시설물인 “당은 대체로 마을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휴식시설인 폭낭알은 육지의 마을 입구에 세워지는 정자 건축과는 다르게 마을의 중심 또는 안길에서 먼 올래로 진입하기 위한 길과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다.”³⁸⁾

생활부대시설물인 샘터는 바다 쪽의 용천수가 있는 곳에 위치하여 마을입지의 기초적 요인이 되었고 여자들이 공동체의식을 형성한 장소이기도 하였다. “방에 또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장소로서 먼 올래의 어귀이거나 그 가까이 2-3기씩 설치하였다.”³⁹⁾ 이러한 마을의 공동시설은 제주만이 갖는 자연, 인문환경 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5) 제주의 조각

제주도 조형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있다면 돌하르방과 동자석이다. 이러한 “제주의 조각품들은 상반신 특히 얼굴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반신 중에서도 팔과 손, 그리고 지물의 표현이 있을 뿐 필요 없는 요소들은 과감히 생략된다. 하반신은 거의 표현되지 않는다.”⁴⁰⁾ “인체의 중요부분인 얼굴이 강조되는 것은 조선시대의 조각이나 서민들의 미술에서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제주도에서의 강조와 생략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⁴¹⁾

이와 같은 표현은 제주 현무암이 갖는 재질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

36) 송성대(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p.493.

37) 제주도(1997), 「민속유적」, 제주도 문화체육과, p.36.

38) 「제주문화」, 제10호, 제주문화원, p.132.

39) 「제주문화」, 상계서, p.133.

40) 국립제주박물관(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p.179.

41) 국립제주박물관(2001), 상계서, p.179.

공질(多孔質)의 현무암은 재질적 특징으로 인해 세밀한 조각은 한계가 있다. "42) 그러한 이유로 단순, 명료, 소박하게 표현되어 지며, 힘이 있는 조각품이 된다. 또한 제주 현무암이 갖는 색감의 무게감이 더해져서 제주 조각이 갖는 독특한 미감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흔히 동자복, 서자복으로 불리는 "미륵보살 상 역시 하르방 조각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다른 부분 보다 특히 얼굴이 강조된 표현이 주목된다."43) 기교를 배제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의 요소들을 단순하지만 명료하게 표현한 제주의 조각은 현대 미술과 상통하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2. 제주 지역 문화재

“문화재란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자연에 대하여 인간의 기술과 창조력을 다하여 창조된 정신적 물질적 소산물로서 각 민족의 역사에서 얽혀 나온 것이므로 구체적으로는 민족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44)

제주 지역문화 유산은 자연을 포함한 모든 것이 감상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주 지역의 문화재 현황 파악을 지정 문화재를 바탕으로 감상 학습 자료로서의 문화재를 선정 하였다.

1) 국가 지정 문화재

국가 지정 문화재는 문화부장관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로서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정하고 있다. 감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지역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국가 지정 문화재 총괄표는 다음과 같다.

42) 「제주문화」 제10호, p.112.

43) 「제주문화」 상계서, p110.

44) 제주도(2004), 「제주문화의 향기」, 제주도 교육과학 연구원, p.3.

<표1> 국가 지정 문화재 총괄표

| | 계 | 국보 | 보물 | 사적 | 중요무형 문 화 재 | 천 연 기념물 | 중 요 민속자료 |
|----------|----|----|----|----|---------------|------------|-------------|
| 계 | 53 | | 4 | 4 | 5 | 31 | 8 |
| 도일원 | 2 | | | | | 2 | |
| 제주시 | 15 | | 4 | 3 | 4 | 3 | 1 |
| 서귀포 시 | 9 | | | | | 9 | |
| 북제주 군 | 14 | | | | | 11 | 1 |
| 남제주 군 | 13 | | | | | 6 | 6 |

*자료 : 본 문화재 자료는 2004년 2월 제주도가 발행한 「문화 예술 현황」에 의함.

국가가 지정한 제주지역 문화재 현황은 <표1>과 같으며 국가 지정 문화재는 관덕정, 불 탑사5층 석탑, 탐라순력도, 안중근의 사유목이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사적으로는 제주목관아지, 제주향과두리, 향몽유적지, 제주고산리선사유적, 제주 삼양동선사유적이 보물로, 기타 천연기념물 31점, 중요민속자료는 8점으로 나타났다.

지정문화재 이외에도 비지정문화재와 지역문화자료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 가까이에 있다. 문화재는 앞으로도 발견될 수 있고 또한 새로이 지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정문화재가 아니라도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학생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자료이면 향토문화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가 지정 문화재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 본 연구의 연구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무형문화재’는 연구 대상에 넣지 않았으며, 다른 종류의 문화재도 중심이 되는 문화재 1점만 대상에 포함 시켰다.

<표2> 국가 지정 문화재 국보 및 보물

| 종별 | 지정번호 | 문화재명 | 소재지 | 지정일 |
|----|--------|-----------|----------------------------------|------------|
| 보물 | 322 | 관덕정 | 제주시 삼도2동 983-1 | 1963.1.21 |
| | 1187 | 불 탑사5층 석탑 | 제주시 삼양1동 696 | 1993.11.19 |
| | 652-6 | 탐라순력도 | 제주시청 | 1998.12.26 |
| | 569-24 | 안중근의 사유목 | 제주시 이도2동 417-3 서해A 2/301(강운호) | 1999.12.15 |

*자료 : 본 문화재 자료는 2004년 2월 제주도가 발행한 「문화 예술 현황」에 의함.

<표3>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

| 종별 | 지정번호 | 문화재명 | 소재지 | 지정일 |
|----|------|-----------------|------------------------|----------------|
| 사적 | 134 | 삼성혈 | 제주시 이도1동 1313 | 1964.6.15 |
| | 380 | 제주목관아지 | 제주시 삼도이동 43-3외 23필지 | 1993.3.31 |
| | 396 | 제주향과두리향 몽유적지 | 북군 애월읍 상귀리 1126-1 | 1997.4.18 |
| | 412 | 제주고산리선사 유적 | 북군 한경면 고산리 3628외 | 1998.12.2 3 |
| | 416 | 제주삼양동선사 유적 | 제주시 삼양동1동 | 1999.11.9 |

*자료 : 본 문화재 자료는 2004년 2월 제주도가 발행한 「문화 예술 현황」에 의함.

<표4> 국가 지정 문화재 중요민속자료

| | 지정번호 | 문화재명 | 소재지 | 지정일 |
|----------------|------|-----------|------------|------------|
| 중요 민속 자료 | 32 | 연자마 | | |
| | -1 | жат동네밀방아 | 북군 애월읍 하가리 | 1975.10.13 |
| | -2 | 성읍민속마을 | 남군 표선면 성읍리 | 1987.9.16 |
| | 240 | 제주도내왓당무신도 | 제주대학교박물관 | 2001.11.30 |

*자료 : 본 문화재 자료는 2004년 2월 제주도가 발행한 「문화 예술 현황」에 의함.

2) 제주도 지정 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이다. 도 지정 문화재의 종류에는 지역별로 유형, 무형, 기념물로는 사적, 수목, 기타,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로 나누어져 있다.

<표5> 제주도 지정 문화재 총괄표

| 중별 지역별 | 계 | 유형 문화재 | 무형 문화재 | 기념물 | | | 민속 자료 | 문화재 자료 |
|-----------|----|-----------|-----------|-----|----|----|----------|-----------|
| | | | | 사적 | 수목 | 기타 | | |
| 계 | 94 | 18 | 15 | 28 | 18 | 6 | 7 | 2 |
| 도일원 | 10 | | | 6 | | | 4 | |
| 제주시 | 32 | 10 | 2 | 8 | 6 | 1 | 3 | 2 |
| 서귀포시 | 10 | 2 | | 4 | 2 | 2 | | |
| 북제주군 | 28 | 3 | 8 | 6 | 8 | 3 | | |
| 남제주군 | 14 | 3 | 5 | 4 | 2 | | | |

*자료 : 본 문화재 자료는 2004년 2월 제주도가 발행한 「문화 예술 현황」에 의함.

제주도 지정 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18점, 무형문화재 15점, 기념물에는 사적 28점, 수목 18점, 기타 6점이 있으며 민속자료는 7점, 문화재 자료는 2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위의 표의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무형문화재와, 기타 유사 영역인 부분에서는 생략한 부분이 있다.

<표6> 제주도 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 종별 | 지정 번호 | 문화재명 | 소재지 | 지정일 |
|-----------|-------|----------------------|---|-----------|
| 유형 문화재 | 2 | 제주향교 | 제주시 용담동 298 | 1971.8.26 |
| | 3 | 연북정 | 북군 조천읍 조천리 2690 | 1971.8.26 |
| | 6 | 향사당 | 제주시 삼도1동 970-2 | 1975.3.12 |
| | 7 | 일관헌 | 남군 표선면 성읍리 809-1 | 1975.3.12 |
| | 9 | 추자처사각 | 북군 추자면 영흥리 809-1 | 1975.3.12 |
| | 10 | 용방록 | 제주 향교 내 | 1991.6.4 |
| | 13 | 탐라지도 및 지도병서 | 제주도청, 민속자연사박물관 | 1991.6.4 |
| | 14 | 제주삼읍도총지도 | (재)고양부상성사재단 | 1991.6.4 |
| | 15 | 홍화각기 | 제주시 아라동 387 보림사 | 1991.6.4 |
| | 16 | 관음사 | 서귀포시 상호동 1156-6 | 1999.10.6 |
| | 17 | 목조관음보살좌상 존자암지세존사리 | 선덕사 서귀포시 하원동 | 2000.11.1 |
| | 19 | 탑 선덕사소장묘 법연화경 | 산1-1(존자암지 경내) 서귀포시 상호동 1156-6 선덕사 | 2003.7.2 |

*자료 : 본 문화재 자료는 2004년 2월 제주도가 발행한 「문화 예술 현황」에 의함.

<표7> 제주도 지정 문화재 민속자료

| 종별 | 지정 번호 | 문화재명 | 소재지 | 지정일 |
|----------|----------|--------|------------------|------------|
| 민속 자료 | 1 | 복신미륵 | 제주도 일원 | 1971.8.26 |
| | -1 | 동자복 | 제주시 건입동 1257주택가내 | 1971.8.26 |
| | -2 | 서자복 | 제주시 용담동 385 용화사내 | 1971.8.26 |
| | 2 | 돌하르방 | 도일원 | 1971.8.26 |
| | 3 | 제주도의초가 | 도일원 | 1978.11.14 |
| | 8 | 방사탑 | 도일원 | 1995.8.26 |

*자료 : 본 문화재 자료는 2004년 2월 제주도가 발행한 「문화 예술 현황」에 의함.

<표8> 제주도 지정 문화재 자료

| 종별 | 지정 번호 | 문화재명 | 소재지 | 지정일 |
|-----------|----------|---------|------------------------|------------|
| 문화재 자료 | 4 | 월정사소장불상 | 제주시 오라2동 652-2 | 2000.12.27 |
| | -1 | 이조여래좌상 | 제주시 오라2동 652-2 | 2000.12.27 |
| | -2 | 목조보살입상 | 제주시 오라2동 652-2 | 2000.12.27 |
| | 5 | 제주속오군적부 | 제주시 이도2동 1176-1제주시청 | 2002.4.17 |

*자료 : 본 문화재 자료는 2004년 2월 제주도가 발행한 「문화 예술 현황」에 의함.

<표9> 제주도 지정 문화재 기념물

| 종별 | 지정 번호 | 문화재명 | 소재지 | 지정일 |
|-----|----------|--------|-------------------------|-----------|
| 기념물 | 2 | 오현단 | 제주시 이도1동 1421-3 | 1971.8.26 |
| | 3 | 지석묘 | 도일원 | 1971.8.26 |
| | 6 | 제주성지 | 제주시 삼도1동 970-2 | 1971.8.26 |
| | 7 | 삼사석 | 제주시 화북동13801 | 1971.8.26 |
| | 9 | 명월 대 | 북군 추자면 영흥리 285 | 1971.8.26 |
| | 10 | 절부암 | 북군 한경면 용수리 포구 | 1971.8.26 |
| | 13 | 최영장군사당 | 북군 추자면 대서리 155 | 1971.8.26 |
| | 17 | 혼인지 | 남군 성산읍 온평리 1693 | 1971.8.26 |
| | 43 | 존자암지 | 서귀포시 하원동 산1-1(볼레약기슭) | 1995.7.13 |
| | 49 | 환해장성 | 도일원 | 1998.1.7 |
| | 60 | 제주도 방묘 | 도일원 | 2003.8.6 |

*자료 : 본 문화재 자료는 2004년 2월 제주도가 발행한 「문화 예술 현황」에 의함.

제주지역의 문화재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국보, 보물, 사적, 민속자료 등의 지역 문화재는 역사적으로 그 시대와 지역을 대표하고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그 자체의 예술성이 뛰어나므로 제주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교육적 가치가 높다.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현재 미래의 바람직한 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의 사회적, 문화적 성격이 강조”⁴⁵⁾되는 현대 미술 교육의 흐름을 “미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사고 능력, 미술 비평능력 등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갖추도록 하였다.”⁴⁶⁾

45) 교육 인적 자원부(2006),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미술1」, 교학사, p.8.

46) 교육 인적 자원부(2006), 상계서, p.9.

Ⅲ. 미술 감상 지도의 실제

문화재에 관한 학습을 단지 지식을 습득하고 암기하는 단순한 학습 방법으로 접근하여서는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문화재에 대한 접근 방식을 미술 감상 체험과 감상능력, 비평적, 미학적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기 위한 감상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1. 미술 감상교육

1) 감상의 개념

감상은 향수(享受)라고도 하고 또 감득(感得)이라고도 한다. 향수는 미술 작품을 보는 것과 또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감득은 예술 작품의 진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맛본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감상은 ‘향수’란 의미를 넘어 ‘가치인식’ 혹은 ‘가치 판단’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작용을 내포하고 있는 미적 향수 활동이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대하는 형상들을 이해하며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미적 시각훈련이 필요하다. ‘정서함양’ ‘심미적 능력 육성’ ‘고상한 취미의 형성’ 등 교양교육의 정도를 벗어나 최근에 와서는 보다 예술 본질적인 입장에서 “시각세계에 대한 안목의 함양, 또는 직접적으로 조형적 모순을 아는 능력의 육성이라든가 예술작품이 지닌 언어를 이해하고 읽는 능력의 양성, 또는 조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의식의 각성 등 다양한 이론으로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⁴⁷⁾

미술작품 감상에서는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주제나 개념, 상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작품은 한 시대, 문화, 작가의 반영 물로 읽혀져야 한다. 즉 미술은 관객에게 작품의 문맥적인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47) 교육 인적 자원부(2006),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미술1」, 교학사, p.10.

미술 감상교육은 학생들이 역사 속에서 이용되어 온 서로 다른 접근 방식들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라는 점에서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감상교육에 임할 필요가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술과의 방향은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고 아울러 미술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에 있다.”⁴⁸⁾

미술활동을 이해와 표현, 감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미술의 이해는 미술의 형식이나 시각적 현상, 미술문화, 표현주제와 재료, 기법 등에 대해 알고 느끼고 지각하는 것을 말하고, 미술표현은 자신의 내면을 재료와 기법을 통해서 시각적, 조형적, 공간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며 “미술 감상은 조형물이나 자연에 대해 그 가치를 느끼고 평가하는 종합적 활동을 말한다.”⁴⁹⁾

“미술 감상 교육은 단순히 ‘보이는 것’에 대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보는 눈’으로부터 ‘볼 수 있는 눈’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며, 여기서 다시 ‘찾을 수 있는 눈’으로 이끌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⁵⁰⁾ 따라서 감상은 그 활동 자체가 내적인 자기 창조 활동인 표현과 연관되어 조형 능력과 창의성과도 관련되지만 무엇보다 미적 대상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미적 감성을 육성하고, 미의 본연이나 특성, 미술품의 미적, 문화적 관련성을 탐구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 미술 감상교육의 목표라 하였다.

아이스너(E.W.Eisner)⁵¹⁾는 제작위주로 미술교육이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제작이 미적 감각을 함양하는 수단의 전부가 아님을 이야기 한 바 있었다. 이는 미술교육에서 표현활동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감상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이야기 하고 있다.

감상교육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미술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즐길

48) 김삼량(2000), 「미술교육론」, 미진사, p406.

49) 교육 인적 자원부(2006),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미술1」, 교학사, p.10.

50) 김정희(1998), 「미술 교육 입문」, 형설출판사, p.48.

51) 아이스너(E.W.Eisner) 1933년 미국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에서 태어나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술 교육 분야에서 로웬펠드 이후로 세계의 미술교육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자로서, 미술교육뿐만 아니라 교육학의 교육과정이나 교육 평가 등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도적으로 갖추게 하고 훗날 미술 소비자로서 살아갈 대다수의 중학생들에게 미술을 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미술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미적 대상을 찾고 그 미적 가치를 느끼도록 하는 과정에 대한 자신감을 잃을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시기에 무조건적인 표현보다는 중학생들에 수준에 맞는 적절한 감상교육을 통해 시각적 안목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

미술 감상 교육은 모든 조형 활동의 근거가 되는 대상에 대하여 보는 것과 색이나 형을 통하여 조형의 뜻이나 감정, 사상 등을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 작업의 원동력이 되므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필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보는 것은 자기를 성장시키는 매개체가 되므로 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란 현재 진행되어 지고 있는 1차원 적인 감상 교육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감상과 미술 비평의 조화를 이루어 감상은 비평에 의하여 더욱 타당한 근거를 확보하고, 비평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풍부해지고 세련되어지는 관계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펠드먼(E.B.Feldman)⁵²⁾은 교육학적 미술비평의 목적을 “지금 학생들이 작품에 대한 권위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이 언젠가는 스스로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것을 돕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문화의 시대라 일컬어지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화를 접하게 될 것이고 그런 문화 속에서 자신이 향유할 문화를 선택하는 능력을 감상교육에서 길러 주어야 한다.

제6차 교육과정과 제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 E.B.Feldman, Becoming human through art : Aesthetic experience in the school,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70), 감상에서 예리한 관찰력으로 작품의 진가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작품의 진가는 보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작품속의 요소들을 이해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표10>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 비교표

| 구분 | 제6차 교육과정 | 제7차 교육과정 | 비고 |
|----|--|--|--|
| 목표 | 내용 가. 내용체계 -중학교 내용 체계 나. 학년별 내용 ①미술과 생활하기 ②보고 나타내기 ③느낌과 상상 나타내기 ④꾸미기와 만들기 ⑤붓글씨로 나타내기 ⑥작품 감상 | 내용 가. 내용 체계 - 국민 공통 교육기관의 내용체계 나. 학년 군별<7,8,9년>내용 (1) 미적 체험 가)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 이해 나) 미술과 생활의 관계이해 (2)표현 가) 주제 표현 나) 표현방법 다) 조형 요소와 원리 라) 표현 재료와 용구 (3) 감상 가) 미술품 감상 나) 미술 문화유산 이해 | -학교 급별이 아닌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관의 내용 체계를 제시하고, 하위 내용들은 중학교에 해당되는 학년 군별<7,8,9학년>내용제시 -내용 적정화를 위해 영역을 재구성하여 제시 -표현 영역의 경우 하부 내용을 주제 표현, 표현재료와 용구로 구성함 - 영역별로 각 내용에서 성취해야 할 능력을 제시하고, 하부에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 제시 |

<표10>을 살펴보면 제6차 교육과정에서 보고 나타내기, 느낌과 상상 나타내기, 꾸미기와 만들기, 붓글씨로 나타내기 등 표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았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적 체험과 감상영역이 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미술교육이 체험과 감상능력, 비평적, 미학적 판단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상 활동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전통 미술을 보다 강조하여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미술품에 대하여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술문화유산 이해의 감상교육에 대한 강조는 6차 교육과정에 이미 있어왔고 '1997년에 공포된 7차 교육과정 때문에 비평방법을 이용한 감상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⁵³⁾

이렇듯 미술문화유산의 이해 감상교육이 깊숙이 침투한 배경은 20세기 중반 발생한 '포스트모더니즘'경향과 그 경향의 일원으로 등장한 '다문화 미술교육'

53) 박휘락(2003), 「미술 감상과 미술비평 교육」시공사, p.51.

그리고 1980년 -1990년까지 번성했던 'DBAE'⁵⁴⁾이 우리나라 미술교육과정에 적용 되었기 때문이다.

지식의 상대성과 다원성을 전제로 하는 포스트모던 교육은 합의된 한 목소리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와 다양성을 활성화시키고 '여러 목소리'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하나의 국가 내지는 사회 속에서 복수의 다른 인종, 민족, 계층 등이 존재할 때 서로 다른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고 그들 각자의 독자성을 육성하려는 다양한 문화의 개념을 강화시켜 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문화의 보편성이나 생활양식의 동일성을 추구하지 않고 서로 다른 생활양식을 추구하고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 권유된다. 다양한 새로운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추구하며 이러한 것들이 인정받고 정당화되는 다원주의 문화 논리인 것이다. 다원성, 다양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은 우리의 미술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미술 문화유산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미술 교육은 두 견해가 있다. 하나는 미술과 관련된 개념의 이해가 중요하며 미술에 대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의 미술사 교육을 가르쳐야 한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에게 보는 방법을 가르치고 표현활동 못지않게 미술을 이해 분석할 수 있는 비평적 시각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견해이다.”⁵⁵⁾

이 두 가지의 견해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미술 감상 교육에 밑거름이 되어 준다면 학생들이 자국과 타국 문화의 미술품이 창조된 문화적 역사적 배경 읽기를 통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 영향을 끼쳐 미술품이 창조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품의 문화적 요소를 잘 파악하고 조형의식이나 미적 의식을 대등하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인터넷의 보급으로 국가 간의 경계가 모호한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

54)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003),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예경, p.288.

DBAE(Discipline -Based Art Education)는 1980년대 아이스너와 그리어 등의 미술 교육 사상가를 주축으로 미국의 게티센터가 개발하여 실천하고 있는 미술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학문에 기초한 미술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술교육을 미학, 미술사, 미술 제작, 미술비평의 네 영역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다.

55)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003), 상계서, p.291.

는 청소년에게는 우리의 미술문화유산과 다른 나라의 미술문화유산에 대한 감상교육의 의의는 더욱 크다 하겠다.

2) 감상지도 이론

감상이 대상의 미적 가치를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내면화 과정이라고 할 때 감상지도는 학생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 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실제로 감상 교육에 있어서는 정서적인 측면과 인지적인 측면 모두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작품을 바라 볼 때의 관점은 다양하다. 대체적으로 직관적, 미학적, 미술사적, 비평적관점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직관적 관점

아무런 편견 없이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그 작품을 바라보기만 하는 관점이다. 이때에는 작품을 바라봄에 있어 어떠한 기준이나 배경을 염두 해 두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작품을 대했을 때 받은 느낌, 인상 그대로를 관조하면서 감상하는 것이다.

(2) 미학적 관점

역사적 사회적 규준적 요소 등 작품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로지 미술 작품의 본질적인 문제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미술 작품의 구조적 특징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선, 색, 형태, 조화, 균형 변화, 통일 등의 조형요소와 원리들을 세밀히 관찰하고 그것들이 작품 속에서 일으키는 미적 의미를 해석하게 한다.

(3) 미술사적 관점

미술 작품을 대할 때 작품 내의 본질적 요소 보다 작품이 제작되기까지의 역사적 사실이나 시대적 상황, 양식 등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시대별, 양식별 미술의 흐름에 중점을 둔다. 훌륭한 과거의 미술문화유산은 제작 당시 비록 작가 개인의 의도로 개성적 특성을 지니고 표현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그 시대적 공간이 있었기에 오늘날 명작으로 후손들에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작품을 창조한 작가의 해석 뿐 아니라 그 작품을 낳게 만든 시대적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미술 작품을

해석하고 가치를 판단하려는 비평적 관점이다. 감상이 작품 이면의 외부자료에 근거한 감상에 중점을 두는 반면 비평적 관점에서의 관점은 작품 자체의 분석을 통해 감상하는 것이다.

(4)비평적 관점

미적 체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조형작품 그리고 자연에 내재된 가치를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관점이다. 학생들이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미적 가치와 의미 등을 밝혀내어 기술, 해석, 분석,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비평적 안목으로 미술 작품을 보다 체계적이고 인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감상 지도의 여러 관점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에게 감상지도를 할 때는 각 각의 관점을 독립적으로 지도하기보다는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지도함이 교육적 효과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대중 매체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시각적 정보는 자극적인 시각 환경을 자아내어 학생들의 시각적 편견과 혼돈을 가져 오게 한다. 언제부터 인가 학교 교육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상용이 되고 있다. 이는 해결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능력이 요구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어떻게 볼 것인가, 동시에 어떻게 판단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은 확실하게 세워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펠드만의 미술 비평에 큰 비중을 두어 살펴보았다.

(5)펠드만의 미술 비평

펠드먼의 이론은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의 비평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펠드만은 미술비평의 목적을 작품의 이해, 작품으로부터 즐거움 발견, 작품의 올바른 가치판단을 들고 있다. 그는 감상자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작품의 진가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작품과 작가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는 참고의 대상일 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작품 속의 요소들을 이해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비평을 통한 감상활동이 보는 활동에서 멈추지 않고 작품들로 영향을 받고 나아가 창조 할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펠드먼의 비평단계에는 작가들이 처음부터 완성 될 작품을 머릿속에 그리고

나서 부분적으로 표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여 점차 수정, 보완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가는 것처럼 작품비평에 있어서도 서술, 분석, 해석, 평가의 순서로 전개해 갈 것을 주장하였다.

<표11>펠드먼의 비평단계

| 단계 | 내용 |
|----|---|
| 기술 | *객관적인 사실들에 의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단계 *작품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찰’과 ‘묘사’이지만 좀 더 따지고 보면 조형적 요소와 원리들에 관한 관찰인 셈이다. |
| 분석 | *앞으로 수행해야 할 해석과 판단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단계 *조형요소들이 어떤 원리들을 동원하여 작품을 조직하고 형성을 창조해내고 있는 지를 분석해내는 단계 |
| 해석 | *작품의 의미를 고려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은 작품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찾고 모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미를 도출해 내는 등의 학습 활동을 하는 가운데 하나의 작품을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내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탐구방법도 알게 될 것이다. |
| 판단 | *다른 작품과의 관계에서 그 작품에 등급을 매기고 선택하며 작품으로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결론적인 평가를 내리는 단계 *학습의 발전으로서 작가나 작품, 혹은 양식이나 미술사적인 맥락에 대하여 더욱 심화학습을 전개하는 계기와 과제를 얻기도 하는 단계이다. |

펠드먼의 비평단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단계에서 유도 될 수 있는 대화내용 들을 살펴 보았다. 펠드먼은 ‘기술’단계에서는 아주 객관적인 사실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하는 단계로 결론, 평가, 주관적 반응 등은 보류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단계는 오감(五感)을 통하여 보고 느낀 그대로를 기술하게 된다. ‘기술’ 단계를 감상활동과 연계시켜 생각해 보면 미술품의 이름, 작가, 종류, 제재, 크기, 제작시기 등에 대해 말하거나, 미술가가 때와 장소, 사상이 믿음, 사회와 문화 등에 따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작

품에서 오늘날의 전통이나 풍습을 찾을 수 있는지, 나의 작품세계와 유사점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분석’ 단계는 작품이 필연적으로 지니고 있는 조형요소와 조형원리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하는데 ‘기술’ 단계에서 살펴본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짜여 있는지를 관찰하는 단계라고 하였다. 이 때 역사적 상황 분석도 가미 시켜 좀 더 심도 있고, 근본적인 상황 이해차원에서의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미술가와 작품에 관한 역사에 대한 고찰은 미술가는 어느 시대 어떤 양식을 사용해서 현 시대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시대 미술가들이 작품을 비교하여 이 작품은 독창적이고 이 작가의 개인적 상황을 잘 나타낸 것인지 혹은 다른 작가의 것은 모방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만약 내가 미술역사가나 미술비평가라면 이 작품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쓸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작품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오늘날 사회에서 미술가와 미술 작품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토의해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선, 색채, 형태, 질, 패턴 등이 균형, 리듬, 조화 통일, 비례, 반복, 대조, 유사성 등 미술 요소와 조형 원리를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처음에 무엇을 보았으며, 시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야기 해 볼 수 있다.

‘해석’ 단계에서는 기술과 분석 단계에서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 나름대로 예술작품의 의미를 해석해 보는 단계이다. 이 미술품의 작가는 작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으며, 나는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미술가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시간과 장소, 새로운 문화나 습관, 전통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토의해 볼 수 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자면, 작품의 목적과 핵심을 짚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아니면 포괄적으로 좋은 미술품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판단’ 단계는 작품에 대한 ‘좋음’과 ‘싫음’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그에 대한 까닭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단계라고 하고 있다. 미술 작품에 대한 판단은 모든 토의가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한다. 맨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질

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작품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 작품을 좋아 합니까? 또 당신은 이 작품을 어떻게 비교하여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당신은 이 작품을 집에 갖고 가기를 원합니까? 작품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왜?” 이에 덧붙여 작품이 마음에 드는 이유, 또는 그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를 정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펠드먼의 비평단계를 기준으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짚어 보았다. 다음은 이러한 감상 교육 내용과 범위가 지도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6)감상능력 발달 단계

학생들의 미적 인식이나 감상능력의 발달도 미술표현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상능력의 발달단계를 연구한 학자 중에서 롯친스(Rochins)⁵⁶⁾의 연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미술작품에 흥미를 갖고 고학년이 되면서 주변 환경과 작품에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 중. 고등학년이 되면 비판적 사고가 발달함에 따라 아름다움을 보는 시각이 분화되어 작품의 특성을 감상하는데 적절한 시기라 하였다.

롯친스는 <표12>에서와 같이 감상 능력 발달 단계를 정리하고 있다.

<표12 > 롯친스의 감상 능력 발달 단계⁵⁷⁾

| | (감상분야) | 황금기 | |
|-------------------|-------------------------------------|--|-------------------------|
| | *자연미 *조형미 | 문화유산으로서의 명작 지역이나 사회적인 것 생활 범위내 친구의 작품 자기의 작품 | 고학년 - 성숙기 |
| 의 분 식 화 ↓ ↓ | 지역 사회의 것 신변 생활 친구의 작품 | 중학교 - 태동기 | ↑ 중학교이상 ↓ 초등학교 |
| 무 미 의 분 식 화 | 자기의 작품 신변의 것 친구의 작품 자기의 작품 | 저학년 - 준비기 | |

56) 롯친스(Rochins)미적 인식이나 감상능력도 일정한 발달과정을 겪는 다고 하여 아동의 교육에 있어 적절한 연령의 고려가 기초적인 전제조건인 하나라고 하였다.

57) 태현미(2000), 「표현활동을 통한 미술 감상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저학년 준비기는 4~5세로 묘사 능력이 낮으며 그리는 것보다는 보는 것에 흥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가치 있는 그림책을 보여 주어 장차 감상력의 기초가 되게 한다.

중학교 태동기는 5~10세로 아동들의 풍부한 상상력에 의해서 자유분방하게 그리는 시기로서 그림을 보는 것보다는 자기의 표현에 흥미를 갖는다.

고학년 성숙기는 11~15세로 묘사력이 침체되나 미적 구성력은 발달한다. 이때 학생들은 자기표현 능력을 자각하며, 평가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감상교육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시기다.

황금기는 15,6세 이후로 정신 능력이 대단히 복잡하게 되며, 예술적 창작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이다. 이때에는 미적 평가력이 대단히 진보하며 진정한 감상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문화재를 이용한 감상 학습이야말로 비판적 인식과 환경에 대한 지각 능력이 높아지는 이 시기의 “적기 교육”⁵⁸⁾이 될 수 있다.

2. 감상 학습 자료로서의 문화재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아름다운 조형물을 만날 수 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돌하르방,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더불어 있는 초가, 먼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는 방사탑, 무덤을 지치고 서 있는 동자석 등 선조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 낸 아름다움을 감상이란 활동을 통하여 환경을 새롭게 보는 방식을 배운다.

문화재 감상 교육은 문화력을 창출해 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인간이 발휘하는 창의력은 강한 고유문화의 토양에서 배양된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지역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교육 내용이야말로 고유 문화의 토양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역 문화재를 선택하고 단순한 견학 감상이 아닌 지역 문화재에 대한 유래, 창건배경, 특징 및 예술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장에 대

58) 학생들의 발달과정으로 보아 그 학습내용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도하는 교육을 말한다.

한 자긍심이 생겨나고 가치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제주지역의 문화유산의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감상 학습에 적합한 문화재를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선정 하였다. 회화영역 3점, 조각영역 3점, 건축영역 5점, 공예영역 1점을 감상 학습 자료로서의 문화재로 선정하였으나 거론되지 않은 문화재 또한 놓칠 수 없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기는 하지만 문화재 전부를 거론할 수 없으므로 생략 시킨 부분은 아쉬운 점이다.

<표13> 감상학습 자료로서의 문화재

| 영역 | 문화재 종별 | 명칭 |
|----|---|---|
| 회화 | 중요민속자료 제240호 문화재 자료 보물 652-6호 | 내왓당 무신도 영주십경도 탐라순력도 |
| 조각 | 민속자료 2호 민속자료 1호 민속자료 -1호 | 돌하르방 복신미륵 동자석 |
| 건축 | 보물 제322호 민속자료 8호 민속자료 제7호 보물 제1187호 민속자료 3호 | 관덕정 방사탑 존자암지 세존사리탑 불 탑사5층 석탑 제주초가 |
| 공예 | 민속자료 | 물허벅 |

제주 지역 문화 유산을 건축, 조각, 회화, 공예 영역으로 나누어 분류한 것이다. 회화영역에는 내왓당 무신도, 영주십경도, 탐라순력도로 분류하고, 조각영역에는 돌하르방, 복신미륵, 동자석, 건축영역에는 관덕정, 방사탑, 제주도의 초가, 존자암지 세존 사리탑, 불 탑사 5층 석탑, 원당사지 5층 석탑으로 분류 하였으며 공예영역은 물허벅으로 분류하였다. 내왓당무신도는 제주의 회화사와 무속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고, 영주십경도는 제주의 자연을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다. 탐라순력도는 당시의 생활의 기록화로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돌하르방, 복신미륵 동자석 등 조각 부분에서는 제주 지역만이 갖는 독특한 조형미를 느낄 수 있다. 기타 건축, 공예품 역시 제주의 자연환경과 지질학적 조건을 잘 반영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미술 감상지도 학습 자료로 선정된 문화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내왓당 무신도(巫神圖)



중요민속자료 제240호
소재지 제주 제주시 아라1동 1

제주도 내왓당 무신도는 원래 제주시 용담동에 있던 ‘내왓당’이라는 신당(神堂)에 모셔졌던 신들이 신상(神像)을 그린 그림으로서 총 10점이 남아 있는데 현재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내왓당은 제주시 용담동을 가로질러 흐르는 한내 중 특히 삼동물이라 불리는 깊은 웅덩이가 있는 주변의 마을에 있었던 당이다.

한자로 ‘천외당(川外堂)’ 또는 ‘천외사(川外祠)’라 했으며 ‘내왓당’이라 한 것은 이 당이 원래 기자치성(祈子致誠)으로 유명한 당이어서 아기 낳기를 원하는 많은 부부가 자고 갔기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내왓당은 <세조실록(世祖實錄)> 및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도 나오고 있어 그 역사가 매우 길고 또한 중요한 당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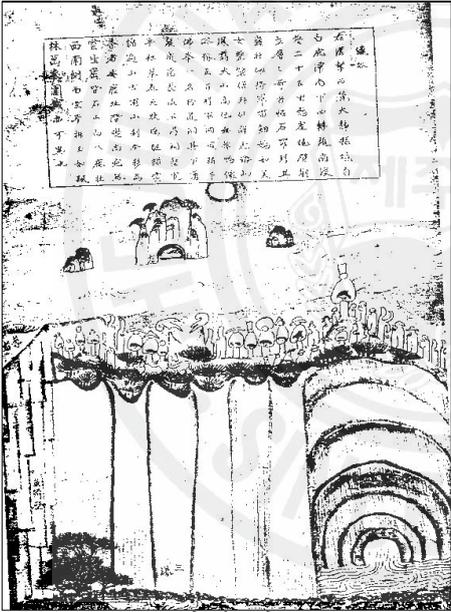
내왓당 무신도는 바탕·채색·문양·장식 등으로 볼 때 1800~185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신도로 제주사람들의 신앙과 생활상이 함께 그려져 지역 특성과 전통을 엿볼 수 있다.

무속과 뱀 신앙이 두드러졌던 제주

| | |
|--|---|
| | <p>도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그려진 이 무신도는 빨강·노랑·초록의 화려한 옷을 입은 신들의 얼굴표정, 부채를 잡은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에서 신들의 권능과 영력의 생생한 모습을 나타냈다.</p> <p>내왓당 무신도는 제주 무속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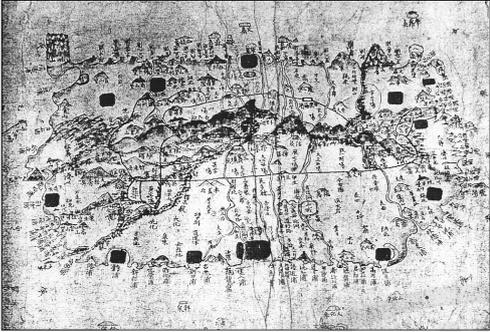
*자료 :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1, 문화재청.

2) 영주십경도

| | |
|--|--|
|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재 자료</p> | <p>제주도의 모습을 그린 영주십경도는 제주의 대표적인 명승 산방, 영곡, 백록담, 취병담, 명월소 등 10곳을 소재로 하여 그린 그림이다.</p> <p>이 작품에는 당시 다른 민화들에서도 볼 수 있는 추상화, 패턴화, 평면화 된 구성 등을 엿볼 수 있으며, 영곡(瀛谷)의 표현에서 보듯 의인화의 경향도 드러나고 있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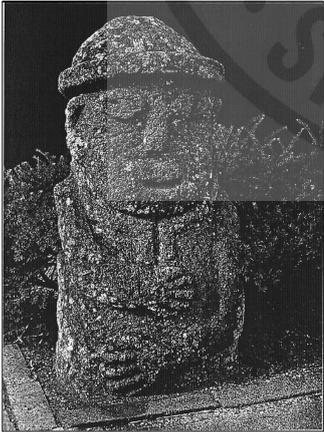
*자료 : 국립제주박물관(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3)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 | |
|---|---|
|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652-6호 소재지 : 제주시청</p> | <p>이형상(李衡祥)이 제주 목사로 부임하여 1702년(숙종 28년) 도내의 각 고을을 순시하며 여행하였던 여러 행사 장면을 화공(畵工) 김남길(金南吉)로 하여금 그리게 하여 꾸민 화첩이다.</p> <p>여기에 수록된 40여개의 그림은 18세기 초 제주도의 관아 건물과 군사 시설, 지형, 풍물 등 갖가지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제주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p> <p>회화적으로는 실용적 목적을 띠고 제작된 기록화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순력도란 이름의 기록화로서는 전국 유일의 지방 순력 도라 할 수 있다.</p> <p>게다가 당시 수도인 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제주도 지방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가치를 지닌다.</p> |
|---|---|

*자료 : 국립제주박물관(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4) 돌하르방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도민속자료 제2호 소재지 : 제주도 일원</p> | <p>우석목, 무석목, 벽수머리 등으로도 불리며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성문 입구에 세워졌던 것이다. 현재는 제주대학, 시청, 삼성혈, 관덕정 등 제주시내 21기,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12기, 대정읍의 인성, 안성, 보성 12기 등 포함 45기가 있다.</p> <p>석상의 형태는 대체로 병거지 형 모자, 부리부리한 왕방울 눈, 큼지막한 주먹코, 꼭 다문 입, 배 위아래로 위엄 있게 엮은 두 손의 모습을 하고 있다.</p> <p>돌하르방의 크기는 평균 신장이 제주 187cm, 성읍 141cm이며, 대정 134cm이며, 제작연대는 1754년(영조 30)경으로 추측된다. 이 석상은 성문 앞에 세워지며 수호신적(守護神的), 주술 종교적(呪術宗教的), 경계금표적(警戒禁標的)기능을 지녔듯이, 육지의 장승과 같은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p> |
|---|---|

*자료 : 국립제주박물관(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5)복신미륵(福神彌勒)



제주도 민속자료 제1호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고려시대 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복신미륵은 자복(子福).자복인. 자복미륵. 큰 어른 등으로도 불려 왔다.

옛 제주 성 바깥 동쪽과 서쪽에 두 미륵이 성안을 지키는 듯 서있다. 두 미륵은 달걀형의 온화한 얼굴에 병거지 형 모자를 쓰고 코를 크게 새긴 점이 특이하다. 재료는 현무암이다,

미륵의 크기는 높이 2.73m에 달한다. 아들 낳기를 빌면 그 효험이 나타나 득남(得男)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석상이기도 하다.

특히 서북미륵의 곁에는 75cm의 동자석이 서 있다. 이는 남근(男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미륵은 민간에서 복을 비는 신으로 숭배되었다.

용왕신앙(龍王信仰)과 복합되어 해상어업(海上漁業)의 안전과 풍어, 출타한 가족의 행운도 지켜준다고 믿었다.

*자료 : 제주도 교육과학연구원(2004), 「제주문화의 향기」

6) 동자석



민속자료
도 일원

제주의 동자석은 산야(山野)나 밭의 한 모퉁이에 나지막한 담장으로 둘러진 삶과 죽음이 나뉘는 공간, 여기서 동자석(童子石, 크기 약 40-90cm)이 있다. 땡기머리, 올린머리, 민머리를 한 얼굴, 상반신만 표현된 신체, 두 손은 앞으로 모아 무엇인가를 잡고 있다.

이들 동자석은 무덤의 주인과 가까이 있다. 무덤을 향해 서기도 하고 옆으로 비껴 마주서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영혼에게 술을 올리는 듯 한쪽의 동자는 병을, 한쪽의 동자는 잔을 들고 있기도 하고, 꽃을 들어 헌호하기도 하며, 불꽃, 부채, 학, 표주박, 꽃 봉우리 등 갖가지 지물(地物)을 받들고 있다. 이러한 동자석은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저승의 동행자이며 안내자이고 무덤을 지키는 지신(地神)이기도 하다. 이러한 동자석은 무덤을 이장(移葬)하더라도 대부분 땅에 묻어 놓는 예가 많고, 일부는 신당(神堂)등에 옮겨져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동자석에는 무속불교 및 유교적인 요소들이 융합되어 제주인들의 심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자료 : 국립제주박물관(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7)관덕정(觀德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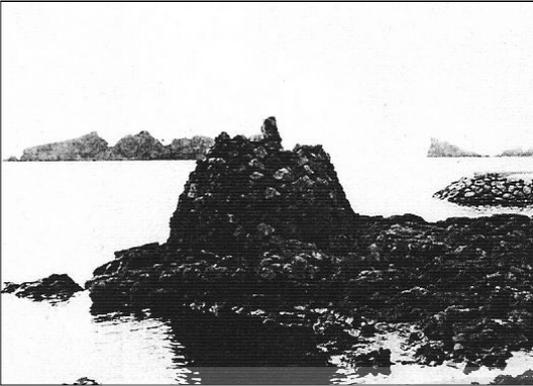
보물 제322호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삼도 2동

조선시대 대표적인 정자(亭子)이다. 1448년(세종30) 안무사 신숙정(辛淑晴)이 병사들의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관덕’이란 명칭은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쌓는다는 뜻으로 문무의 올바른 정신을 본받기 위하여 명칭을 지었던 것이다. 관덕정의 실내. 외 벽면에 그려져 있는 벽화는 작자 미상이나, 상당히 격조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용은 두보(杜甫)의 취과양주굴만현(醉過楊州橋滿軒), 상산사호(商山四皓), 적벽대첩도(赤壁大捷圖), 대수렵도(大狩獵圖), 진중서성탄금도(陣中西城彈琴圖), 홍문연(鴻門宴), 십장생도(十長生圖)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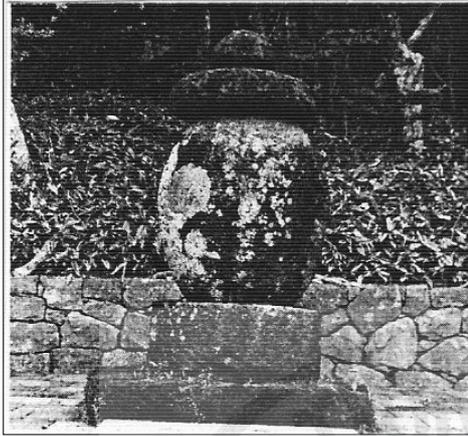
*자료 : 제주도 교육과학연구원(2004), 「제주문화의 향기」

8)방사탑

| | |
|---|---|
|  | <p>는 뜻이고, 솔을 묻는 것은 솔은 무서운 불에도 끄떡없이 이겨내는 것이니 마을의 재난을 방액해 달라는 뜻으로 이루어진 유감 주술적인 사고다. 방사 탑은 속칭 ‘거옥대’, ‘거육’, ‘거왁’, ‘극대’라고도 한다.</p> <p>탑은 보통 좌우, 음양, 남북 대칭으로 쌓는 것이 보통이며 탑위에 새의 형상을 한 돌이나, 사람의 모양을 한 석상을 세운다. 따라서 방사 탑은 장승, 솟대, 미륵돌의 기능 일부를 지니고 있다. 탑을 마을의 허한 방향에 세우면 액운과 살을 막아 준다는 풍수지리적인 방사의 기능과 함께 마을의 안녕을 보장하고 수호하며 진염병의 예방, 화재 예방, 해상의 안전과 아이를 낳게 하고 보호해 주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방사 탑은 쌓기 시작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마을 공동의 작업에 의해 형성된 조형물로서, 제주도에 전하는 마을 신앙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p> |
| <p>제주도 자정 민속자료 제7호 소재지 :도 일원</p> <p>방사 탑은 마을의 어느 한 방위에 불길한 징조가 보인다거나 어느 한 지형의 기가 허한 곳에 쌓아두는 돌탑으로, 부정과 악의 출입을 막아 마을을 평안하게 하고자 하는 신앙의 대상물이다. 탑을 쌓아 올릴 때는 그 속에 밥주걱이나 솔을 묻고, 그 위에 돌담을 사람의 키 높이 이상 쌓는다. 밥주걱을 묻는 이유는 솔의 밥을 굶어 담듯이 외보의 재물을 마을 안으로 담아 들이라</p> | |

*자료 : 제주도 교육과학연구원(2004), 「제주문화의 향기」

9) 존자암지 세존사리탑



제주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17호
소재지: 서귀포시 하원동 산1-1
존자암지

세존사리탑은 제주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탑이다. 먼저 지대를 단단히 다지 후 8각형 기단을 구축하여 그 위에 뿔돌을 놓고 탑신을 엮어 옥개석을 동일 석으로 만들었다. 탑신석은 석종 형에 속하나 장구 형으로 상. 하를 평평하게 치석하였으며 중앙부로부터 상. 하단에 이르면서 유여한 곡선미를 보이고 있다. 옥개석 형태는 하면은 평평하나 낙수면 이 제주 초가지붕 형태로 부드러운 곡선을 보이고 있으며 그 위에 조성된 보주 또한 세련된 조각미를 연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옥개석과 보주를 같은 돌로 치석한 예가 없을 만큼 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팔각으로 이뤄진 하대석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팔각원당형 사리탑의 기본양식을 계승하고 있으며 뿔돌에 사리 공을 마련하고 장구형 탑신석 위에 옥개석을 덮고 정상에 보주를 장식한 양식 등 각부의 치석과 건조 수법으로 보아 건조연대는 고려 말 조선 초로 추정된다.

*자료 : 제주도 교육과학연구원(2004), 「제주문화의 향기」

10) 원당사지 5층 석탑



보물 제1187호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삼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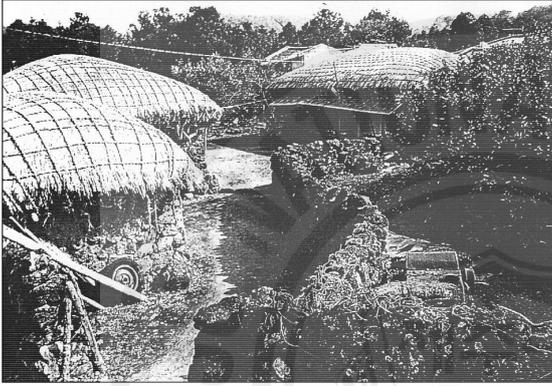
현존하는 제주도의 유일한 석탑이다. 원당사지 5층 석탑은 기단부와 5층의 탑신부로 구성되어 있다. 상륜부에는 철제 刹柱(찰주)를 꽂고 여기에 보주, 용차 등의 장식을 꿰어 꾸미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단면석에는 후면을 제외한 3면에 안상(면상:무늬곽)을 새겼다 .

안상내부에는 밑으로부터 솟아오른 꽃을 조각하였다. 이처럼 솟은 꽃을 표현한 예로는 천흥사지 오층석탑, 사자빈신사지 석탑, 정토사지 오층석탑 등 고려시대 석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러나 원당사지 오층석탑은 다른 석탑이 안상 둘레를 화려하게 조각하는데 비하여 기단면석에 따라 사각형의 테두리만 돌렸고, 꽃 장식도 형태만을 단순화시킨 특징을 지니고 있다.

초층탑신 정면에는 건물의 문을 표현하기 위해 돌을새김으로 문틀을 상징적으로 내고 안쪽을 파내어 이곳에 사리를 봉안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옥개석 지붕 네 귀에는 풍탁을 달았던 풍탁공이 있다. 5층의 옥개석 위에 노반석이 올려져 있으며 현재 상륜으로 올려 있는 석재는 훗날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석탑은 제주에서 직접 만든 현지제작 된 석탑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자료 : 제주도 교육과학연구원(2004), 「 제주문화의 향기 」

11) 제주초가

| | |
|--|---|
|  | <p>제주도의 주택은 그 형성 배경인 자연 환경과 문화의 특이성으로 인해 육지의 주택과는 전혀 다른 유형을 보이고 있다.</p> <p>특히 뚜렷한 차이점은 배치 형식이 마당을 중심으로 한 구심적 대칭형과 별동 배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속 신앙과 풍수지리, 기후에 대처한 요구, 제주도만 있는 특이한 가족 제도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이 작용했다. 제주의 전통 특징은 대부분 초가집이었는데 새 ‘띠’라는 마른 풀잎으로 지붕을 이고 해풍에 날리지 않도록 바둑판처럼 줄로 엮어매었다. 내부 공간은 3칸 또는 4칸으로 나뉘어 졌으며, 방, 마루, 부엌, 창고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붕은 1-2년 마다 한 번씩 교체시키며, 강우량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1년 주기가 보통이다. 제주도의 초가 지붕 형태는 바람이 많은 환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속에서 터득된 제주 초가만의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민속학적 연구의 대상일 뿐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도 귀중한 문화유산이다.</p> |
|--|---|

민속자료 3
도일원

*자료 : 제주도 교육과학연구원(2004), 「제주문화의 향기」

12) 물허벅

| | |
|--|--|
| <div data-bbox="347 342 659 663"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450 660 564 689" data-label="Caption"> <p>민속자료</p> </div> <div data-bbox="406 705 608 739" data-label="Text"> <p>소재지 : 도일원</p> </div> <div data-bbox="304 752 713 978" data-label="Text"> <p>허벅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제주도에서 산출되는 점토를 단일 재료로 1,100도가 넘는 노랑굴(가마)에서 구워낸 제주의 전통 질그릇을 말한다.</p> </div> | <div data-bbox="730 331 1353 461" data-label="Text"> <p>허벅은 실용성을 우선했지만, 불에 구우면서 발생한 자연유가 발생해 투박하지만 독특한 맛을 갖고 있는 정감 있는 질그릇이다.</p> </div> <div data-bbox="730 474 1353 651" data-label="Text"> <p>허벅 등 노랑 굴의 기물들은 표면이 자연유가 발색되도록 하고, 내면은 깨끗한 황토색을 유지한다. 불길에 의해 자연과 조화된 표면의 '자연유'는 제주도기의 특징이다.</p> </div> <div data-bbox="730 665 1353 842" data-label="Text"> <p>제주도기를 '숨 쉬는 용기'라고 부르는 것은 유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공들이 자유자재로 그려 넣은 '보로롱 문양'은 제주허벅의 질박함을 더해준다.</p> </div> <div data-bbox="730 855 1353 985" data-label="Text"> <p>허벅은 전통적으로 제주에서 사용되는 식수 운반도구로서 제주의 자연 환경과 인문적 배경에서 자연 발생된 특유의 양식으로 제작 되었다.</p> </div> |
|--|--|

*자료 : 제주도(1982), 「제주의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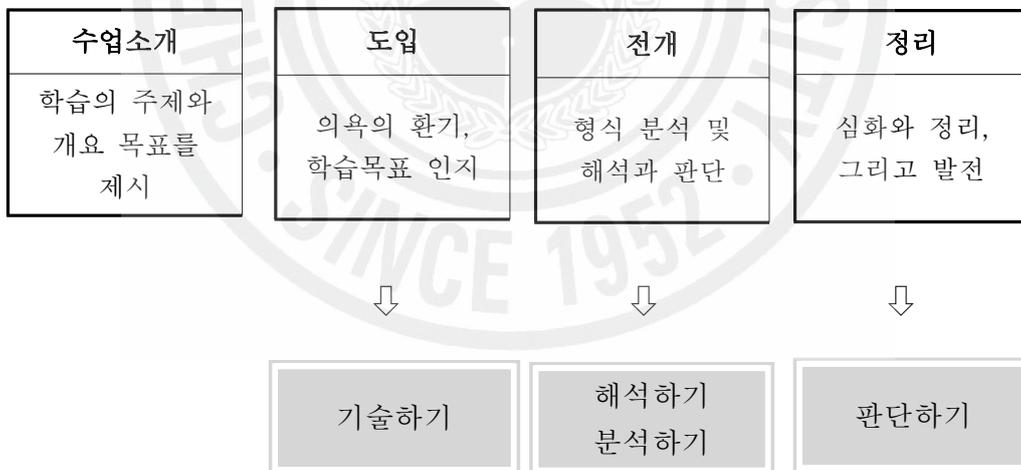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긴 우리 문화재는 개인적 창조에 그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해석 되고 재평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관객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온 역사와 흔적으로서 이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술 교육이 소수의 전문가를 기르는 교육이 아닌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 문화유산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문화재를 올바르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과 태도를 길러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제주 지역 문화유산의 뛰어난 조형 가치를 구체적으로 도내 학생들에게 미술 교육의 감상영역에 활용한다면 제주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다.

3. 제주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수-학습 과정 안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민족, 시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의 모든 활동에 의한 조형물이 그 시대를 말해주고, 그리고 그 역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조형물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문화유산이 주는 조형물의 특징을 바탕으로 오늘날 ‘정서 함양’ 이니 심미적 능력 육성 이니 ‘고상한 취미의 형성’ 등 교양 교육정도로만 다루어져 왔던 감상교육의 의의를 미술 감상 내용을 보다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서 감상에 임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 과정 안에 감상의 비평단계를 도입한 학습지도 모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학습 활동 과정을 설계하고 수업지도안을 작성 하였다.

<표14> 수업모형



1) 교수- 학습 과정안

(1) 회화영역 - ‘영주십경도’ 감상하기

| 학 습 및 활 동 내 용 | |
|---------------|--|
| 수업소개 | <p>대상 : 중학교1, 2 3학년</p> <p>◆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아름다운 명승지를 소재로 한 ‘영주십경도’를 감상하고 작품작가 작품의 규모, 재료, 방법 등을 살피고, 조형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작품이 주는 문화적 가치를 안다.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자세히 관찰하고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 제작의도를 알아보고 작품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표현 방식에서 패턴화, 의인화, 추상적 표현을 찾아보고 다른 작품에서 같은 표현 방식을 찾아 볼 수 있다. <p>◆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와 시대를 달리하여 한국화를 감상하고 작가의 표현의도와 목적을 이해 할 수 있다. • ‘영주십경도’에 나타난 표현 방법, 조형요소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작품 감상 후 자신의 느낌, 평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p>◆ 지도상의 유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느낌을 관찰하여 이를 표현하는 방법과, 작가의 느낌과 생각을 작품 속에 담아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 기법, 주제해석, 개성이 잘 나타난 미술품을 비교, 감상하고 미술 표현 영역에서도 관찰력과 미술가의 제작 의도, 대상이 지닌 느낌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작품의 제작된 시기와 그 배경 요인들이 미술품과 미술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 | |

| | |
|---|---|
| <p>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인지, 기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 • 감상 작품의 제시 자료 - 슬라이드 • 처음 본 감동과 인상을 이야기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미술작품은 언제 제작되었는가? - 미술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작품의 종류는 무엇인가? - 작품에서 오늘날의 전통이나 풍습을 볼 수 있는가? - 미술가의 세계와 당신의 세계가 비슷한 점이 있는가? - 작품은 원작대로 보존되었는가? • 오감을 통하여 보고 느낀 그대로를 기술한다. |
| <p>전개 (형식 분석 및 해석)</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상의 특질에 관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의 요소와 조형원리에 해하여 주의 깊게 관찰 한다. 선, 색채, 형체, 질, 패턴 등이 균형, 리듬, 조화 통일, 비례, 반복, 대조, 유사성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라. 이들의 구성요소들은 구도에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를 토의 해 보자. • 조형 역사적 양식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의 명칭에 대하여 : 미술가는 어떤 양식을 사용하였는가? 어느 시대로부터 온 것인가? - 이 미술가의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 작품은 다른 연작 중의 하나인가? - 만약 당신이 미술역사가나 미술비평가라면 이 작품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쓸 것인가? - 이 작품이 보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다음에 대하여 대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작품에서 처음 무엇을 보았는가? - 당신의 눈은 다음 어디로 움직이는가?(선이나 색들에 대하여) - 왜 그렇게 보이는가? - 미술가는 공간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 이 그림에서 중심이 되는 색채는 무엇인가? *워크시트 등에 의한 기술한 내용을 자료로 하여 대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미술품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왜 그런가? -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가? - 이 그림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이 만약 미술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겠는가? - 만약 당신이 약간 유명한 작품과 그렇지 못한 작품을 보았다면 그 차이를 말할 수 있겠는가? |
| 정리 (심화와 정리, 그리고 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가 끝날 때 까지 미술작품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도록 한다. • 끝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이 작품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 작품을 좋아 합니까? 또 당신은 이 작품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당신은 이 작품을 집에 갖고 가기를 원합니까? 작품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특히 마음에 드는 이유와 정당화를 설명하세요.” • 작가의 다른 작품 조사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수집, 스크랩, 전시회 관람 등 • 같은 시대 다른 작가와의 비교하기 • 작가에게 편지 쓰기 등 |

(2) 조각 영역 - ‘동자석’ 감상하기

| 학 습 및 활 동 내 용 | |
|---------------|--|
| 수업 소개 | <p>대상 : 중학교1, 2, 3학년</p> <p>◆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자석의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작 의도를 알아보고 작품 재료가 갖는 특징을 안다. • 제주의 무속신앙이 생겨난 배경을 이해한다.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에는 무속불교 및 유교적인 요소들이 융합된 복합적인 종교가 반영 되어 있다. 종교의 이런 특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주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보고 동자석이 가지는 기능과 목적 그리고 동자석이 가지는 표현상의 특징 재료의 특징을 아는 데 중점을 두며 문화재를 애호하고 보존 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p>◆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자석과 같은 용도로 쓰였던 타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

| | |
|--|--|
| | <p>형태, 표정, 표현 재료 등을 알아보며 동자석의 기능과 목적,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상의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자석이 종류와 쓰임새가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한다. • 제주인들에게 종교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한다. |
| <p>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인지, 기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 • 감상 작품의 제시 자료 - 슬라이드 • 작품을 처음 본 감동과 인상을 이야기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작품의 제재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주로 있는가? - 원 작품은 얼마나 큼니까? - 미술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작품의 종류는 무엇인가? - 작품에 나타난 전통이나 풍습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가? - 이 작품은 사회와 문화 등에 따라 어떤 메시지를 전달 하는가? - 작품은 원작대로 보존되었는가? - 당신의 오감을 통하여 작품을 통한 여행을 하십시오. • 오감을 통하여 보고 느낀 그대로를 기술한다. |
| <p>전개 (형식 분석 및 해석)</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상의 특질에 관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의 요소와 조형원리에 대하여 주의 깊게 관찰 한다. 선, 색채, 형태, 질, 패턴 등이 균형, 리듬, 조화 통일, 비례, 반복, 대조, 유사성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라. 이들의 구성요소들은 구도에 어떻게 조직 되어 있는가를 토의해보자. • 조형 역사적 양식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의 명칭에 대하여 : 미술가는 어떤 양식을 사용 하였는가? 어느 시대로부터 온 것인가? -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 작품의 종류는 다양한가? - 만약 당신이 미술역사가나 미술비평가라면 이 작품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쓸 것인가? - 이 작품이 보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다음에 대하여 대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작품에서 처음 무엇을 보았는가? - 당신의 눈은 다음 어디로 움직이는가?(형태의 부분) - 왜 그렇게 보이는가?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가는 공간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 이 조각에서 강조하고자 한 부분은 어디인가? - 이 작품은 본래 어디에 놓여 있는가? 공공건물에? 정원에? 미술관에? - 역사에 있어 미술작품의 기능은 어떠한가, 예술가가 현 시대의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려 하는가? - 이 작품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워크시트 등에 의한 기술한 내용을 자료로 하여 대화하기 - 이 미술품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왜 그런가? -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가? - 이 작품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 당신이 만약 미술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이겠는가? - 만약 당신이 약간 유명한 작품과 그렇지 못한 작품을 보았다면 그 차이를 말할 수 있겠는가? |
| <p style="text-align: center;">정리 (심화와 정리, 그리고 발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가 끝날 때 까지 미술작품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 • 끝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p>“이 작품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 작품을 좋아 합니까? 또 당신은 이 작품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당신은 이 작품을 집에 갖고 가기를 원합니까? 작품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왜?</p> <p>특히 마음에 드는 이유와 정당화를 설명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다른 작품 조사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수집, 스크랩, 전시회 관람 등 • 다른 작품과의 비교 • 작가에게 편지 쓰기 등 |

(3) 건축 영역 - '제주초가' 감상하기

| 학 습 및 활 동 내 용 | |
|---|---|
| 수업 소개 | <p>대상 : 중학교1, 2, 3학년</p> <p>◆ 주제 제주지역의 초가는 어떤 특성을 갖는지 알아보고 다른 지역의 초가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또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있다.</p> <p>◆ 개요 제주 초가는 제주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반영된 건축물이다. 바람이 많은 기후조건과 지리적 여건에 적응하여 교유하고 독특한 조형성을 갖는다. 제주 초가의 구조와 구성, 재료를 통하여 제주 건축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다.</p> <p>◆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환경과 건축물이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 지를 알 수 있다. • 주위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지를 알 수 있다. • 다른 지역의 초가를 감상하고 형태와 구조 및 재료의 차이를 알 수 있다. • 제주 초가가 가지는 실용성을 이해하고 민속자료로서의 가치를 알 수 있다. <p>◆ 지도상의 유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초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속마을 현장 학습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현장 학습을 계획한다. |
| 도입 (동기유 발, 학습목 표 인지, 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 • 감상 작품의 제시 자료 - 슬라이드, 현장 학습 • 작품을 처음 본 감동과 인상을 이야기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작품의 제재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주로 있는가? - 자주 볼 수 있는가? - 미술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작품의 종류는 무엇인가? - 이 작품의 이름을 다시 지어 본다면 무엇이라고 지을것인가? - 작품에서 오늘날의 전통이나 풍습을 볼 수 있는가? - 이 작품은 우리 생활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가? • 오감을 통하여 보고 느낀 그대로를 기술한다. |

| | |
|------------------------------------|--|
| <p>전개 (형식 분석 및 해석)</p> | <p>*조형상의 특질에 관한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의 요소와 조형원리에 대하여 주의 깊게 관찰 한다. 선, 색채, 형체, 질, 패턴 등이 균형, 리듬, 조화 통일, 비례, 반복, 대조, 유사성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 지 주의해서 살피자. 이들의 구성요소들은 구도에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를 토의해보자. <p>• 조형 역사적 양식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의 명칭에 대하여 : 미술가는 어떤 양식을 사용하였는가? 어느 시대로부터 온 것인가? - 지역의 다른 작품과의 비교: 차이점은 무엇인가? - 만약 당신이 미술역사가나 미술비평가라면 이 작품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쓸 것인가? - 이 작품이 실용적인 면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 건축물에서 구조나 시설 내부구조의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p>*다음에 대하여 대화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작품에서 처음 무엇을 보았는가? - 당신의 눈은 다음 어디로 움직이는가?(형태의 부분) - 왜 그렇게 보이는가? - 미술가는 공간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 이 건축에서 강조하고자 한 부분은 어디인가? - 역사에 있어 이 건축물이 현 시대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 이 작품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p>*워크시트 등에 의한 기술한 내용을 자료로 하여 대화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미술품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왜 그런가? -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가? - 이 건축물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 당신이 만약 이 초가를 만든다면 어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지금 초가를 만든다면 그 시대의 초가와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가 끝날 때 까지 미술작품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 • 끝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이 작품에 대하여 무엇을 생 |

| | |
|--|---|
| 정리 (심화와 정리, 그리고 발전) | <p>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 작품을 좋아 합니까? 또 당신은 이 작품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p> <p>특히 마음에 드는 이유와 정당화를 설명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다른 작품 조사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수집, 스크랩, 전시회 관람 등 • 타 지역의 작품과 비교하기 • 내가살고 싶은 초가집 디자인하기 |
|--|---|

(4) 공예 영역 - ‘물허벅’ 감상하기

| 학 습 및 활 동 내 용 | |
|---------------|--|
| 수업 소개 | <p>대상 : 중학교1 2, 3학년</p> <p>◆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와 기법, 소박한 제주인의 정서가 담긴 ‘물허벅’의 조형적 특성과 기능적인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민족마다 전해 내려오는 공예품은 그 민족 고유의 독특한 생활 양식이나 특성이 담겨져 있다. 공예품의 감상을 통하여 제주 특유의 조형미를 느끼고 ‘옹기’의 우수성을 알아 보는데 의의를 둔다. <p>◆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옹기의 특징과 조형성을 알고 타 지역의 도자기와 비교하여 재료 및 기법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p>◆ 지도상의 유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공예품을 감상하도록 하여 흥미를 잃지 않게 한다. • 제주의 토양의 특성을 이해하여 옹기의 실용성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 • 감상 작품의 제시 자료 - 슬라이드 <p>*작품을 처음 본 감동과 인상을 이야기 한다.</p> |

| | |
|---|--|
| <p>도입 (동기유발, 학습 목표 인지, 기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작품의 제재는 무엇인가, 어디에 주로 있는가? - 원 작품은 얼마나 큼니까? - 미술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작품의 종류는 무엇인가? - 작품에서 오늘날의 전통이나 풍습을 볼 수 있는가? - 이 작품은 사회와 문화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 작품은 원작대로 보존되었는가? - 당신의 오감을 통하여 작품을 통한 여행을 하십시오. • 오감을 통하여 보고 느낀 그대로를 기술한다. |
| <p>전개 (형식 분석 및 해석)</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상의 특질에 관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의 요소와 조형원리에 해하여 주의 깊게 관찰 한다. 선, 색채, 형태, 질, 패턴 등이 균형, 리듬, 조화 통일, 비례, 반복, 대조, 유사성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라. 이들의 구성요소들은 구도에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를 토의해보자. • 조형 역사적 양식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의 명칭에 대하여 어느 시대로부터 온 것인가? - 다른 지역의 작품과의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당신이 미술역사가나 미술비평가라면 이 작품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쓸 것인가? - 이 작품이 가치 있게 보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다음에 대하여 대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작품에서 처음 무엇을 보았는가? - 당신의 눈은 다음 어디로 움직이는가?(형태의 부분) - 왜 그렇게 보이는가? - 미술가는 공간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 이 조각에서 강조하고자 한 부분은 어디인가? - 이 작품은 본래 어디에 놓여 있는가? 공공건물에? 정원에? 미술관에? - 역사에 있어 작품의 기능은 어떠한가, 작품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 이 작품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워크시트 등에 의한 기술한 내용을 자료로 하여 대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미술품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왜 그런가?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가? - 이 작품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 당신이 만약 미술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이겠는가? 소리도 들을 수 있겠는가? - 만약 당신이 약간 유명한 작품과 그렇지 못한 작품을 보았다면 그 차이를 말할 수 있겠는가? |
| <p style="text-align: center;">정리 (심화와 정리, 그리고 발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 문제에 대한 토의가 끝날 때 까지 미술작품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를 학생들에게 격려한다. • 끝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이 작품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 작품을 좋아 합니까? 또 당신은 이 작품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서열을 매기겠습니까? 당신은 이 작품을 집에 갖고 가기를 원합니까? 작품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마음에 드는 이유와 정당화를 설명하세요. • 작가의 다른 작품 조사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수집, 스크랩, 전시회 관람 등 • 같은 시대 다른 작가와의 비교하기 • 물허벅 디자인 하기 |

V. 결론

오늘날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생력이 있는 문화가 압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압도하는 문화를 찾으려 하는 노력이 교육에서도 필요 하다. 미래를 주도해 나갈 학생들에게 커다란 경제력을 물려주는 것 보다 더 값진 것은 독창적인 문화유산의 전수일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 지역 문화유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현 중학교 미술교육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술 문화유산의 이해’ 부분을 제주 지역의 문화유산을 다른 학습모형으로 구성하여 현재의 중학교 미술교육에서의 막연하고 형식적인 감상 교육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감상교육은 단지 보는 즐거움이었고 발전 단계에서는 모사해 보거나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이 전부였다. 하지만 감상방법의 변화가 시도된다면 학습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폭 넓고 다양한 지식의 구조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품에 대한 문제를 설정하고 공동적으로나 개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하여 탐구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도서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모아 정리, 분석, 해석, 검증, 자료를 통합하고 작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작품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유산의 감상 교육은 단지 미술품을 많이 보고 그리는 것으로 배양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문화유산의 이해와 향유를 어렸을 적부터 꾸준히 미술품을 보고 읽는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주는 지역의 특색이 뚜렷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많은 문화재를 가진 고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개념이나 우리고장에 위치한 유적, 유물의 유래와 역사성 및 아름다움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감상학습에서 흥미롭게 지역문화재의 가치에 관심을 갖게 해 준다면 미래를 여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고장의 문화재에 대한 긍지를 심어 줄 수

있고, 문화재의 중요성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런 교육이야말로 제주 지역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현 시대에 맞는 다양한 학습 자료의 개발과 활용 교수법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해 나가야 함을 인식시키고 교육 현장에서도 시도된 연구를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또한 문화재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재를 통한 교육에 관심을 갖는다면 중학교 미술 감상 교육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강우방(2001), 「미의 순례」, 예경.
- 김삼량(2000), 「미술교육론」, 미진사.
- 박휘락(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시공사.
- 변시지(1988), 「예술과 풍토」, 열화당.
- 임태승(2004), 「소나무와 나비」, 심산.
- 진성기(1990), 「제주민속의 멋2」, 설화당.
- 최병식(1993), 「동양미술사학」, 예서원.
-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003),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예경.
- 현길언(2001),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 국립제주박물관(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국립제주박물관.
- 교육인적자원부(2002), 「중학교 1학년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2), 「중학교 2학년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2), 「중학교 3학년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논문>

- 박문숙(1995), 「중등학교 미술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태현미(2000), 「표현활동을 통한 미술감상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두호(2004), 「중학교 미술 감상 지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하(2001),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전통분야 내용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희창(2006), 「전통미술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기타>

류재만(2000), 「미술 감상학습에서 교수학습모형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9집, 한국미술교육학회.

류재만(1994), 「아동 미술 감상 지도 방안 연구」, 사향미술교육논총 제2집.

천정일(1999), 「제주도」, 제주시우당도서관.

「탐라순력」, 창간호, 탐라문화보존회.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1, 문화재청



<Summary>

Study Of Art Appreciating Education By Using The Cultural Heritage Of Jeju

Lee, Sukgyoung

Art education in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Kang, Minsuk.

Jeju island has very unique nature such as basalt, a straw-thatched roof protecting strong wind and ponies eating grass including mountain Halla. These geographical and natural features Which are very different from others have been made an unique culture with natives of Jeju island. Moreover the spontaneous cultural feature is a very important heritage that we should make over to our descendants. Our ancestor informs what we should learn through the cultural heritage. So we should not only know what the heritage is but also get a foothold for developing i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hich can lead the 21st multicultural society must be the cultural education. So far the art education has just focused on the trend of art rather than interested in the importance of our own culture. As a result, it is true that students whil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haven't be able to learn the value of the traditional art culture and to get an aesthetic sense of the regional culture that has the national trait.

Most of all, education must help students to read the global current of time standing on their own identity. Education must help students to get a traditional aesthetic sense with systematic and logical studying and to receive a foreign culture with a pride of their own culture. That is a real counter plot for a globalization and a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By this research, I studied the education of art appreciation using Jeju local cultural assets by studying the teaching method of art appreciation that can find the cultural meaning, formative searching and spiritual value of cultural assets. Futhermore, I suggested the method that students can improve their observation, analysis and self-leading studying for systematic and logical studying of appreciation class.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ly, I found the unique historical meaning, formative trait and spiritual value of cultural assets by researching the natural environment and historical

origin and the kinds and contents of it through native art data.

Secondly, I arranged the meaning and the value of appreciation, the developing steps of appreciation skills, and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right appreciation.

Thirdly, I studied the appreciation method related to art criticism considering current problems of art appreciation class.

Last, I suggested teaching plan of some Jeju local cultural assets that is appropriate for middle school students to appreciate an aesthetic sense of i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first, to help students to understand of local cultural assets by adapting local cultural assets to art appreciation. Second, to help students to have an aesthetic experience with local cultural assets and to have an active appreciate attitude by appreciating it from the point of view of formative sense which is harmonized with formative trait and natural beauty. Third, to help students to feel the ancestors' inspiration through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origin and to love their own culture and to be proud of it.

The cultural assets in Jeju area are very important resource for art appreciation that would feel the way of life of our ancestors . So we need to make a full use of local cultural assets so that students can find a formative beauty from them and are interested in art appreciation class and at the end, they will take pride in Jeju local cultural heritage..